

KMI 동향분석

VOL.167
2020 MARCH

발간년월 2020년 3월(통권 제167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류정곤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
(mcm1866@kmi.re.kr/051-797-4581)
이현동 수산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lhd7729@kmi.re.kr/051-797-4543)
박찬엽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pcy0814@kmi.re.kr/051-797-4569)
한다정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han1125@kmi.re.kr/051-797-4565)

2015년부터 인터넷 쇼핑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 섰으며, 전 산업에서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은 연간 3조 5천억 원에 달하였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물의 최근 3년간 성장률은 21%로 전산업 온라인 쇼핑물의 성장률보다 높았으며, 합리적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신선식품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유통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도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대형 소매점의 주간 매출액은 5%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어 지난 2월 수산물 매출액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SSG닷컴에서 188.1% 증가하고, 롯데닷컴에서도 생연어 매출이 2,680% 증가하는 등 온라인 매출의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쇼핑 영역은 우리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접촉 구매 방식이 선호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구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 O2O(Online to Offline) 기업인 하마선생(盒马鲜生)은 온오프라인 연결 매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마선생은 양식어가와의 제휴를 통해 활어 유통·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양식 활어의 유통, 판매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수산물 유통시장도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소비트렌드 변화와 배송서비스, 가격비교 등 온라인 쇼핑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갖춰졌

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상품군별로 세분화된 온라인 쇼핑물 등장에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수산물 이커머스 시장 진입 구조는 i) 온라인 쇼핑물 입점, ii) 생산자 자체 물 구축으로 구분되며, 수산물 또한 물류의 이동체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배송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소매단계 축소로 유통구조가 단순화 되고 있다. 신선식품 온라인 거래 확산에 수산물은 신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선도 유지 어려움으로 배송지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양식 활어는 배송 상품이 될 수 없어 온라인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양식산 활어는 활어차, 수조시설이 필요한 활어 유통의 특성상 80% 이상이 장외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오랜 유통구조의 고착화로 생산자 중심의 가격교섭력이 약하고, 위생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비동조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활어전문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어전문유통센터가 수집상과 장외도매시장의 기능을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대표 O2O 기업인 하마선생(盒马鲜生)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활어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역 양식어가와 협력관계를 맺고, 직접 중소규모 양식어가 및 기업을 모집하여 수매계약을 통해 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연결을 위해 48개소에 달하는 온도제어식 상온저온 창고, 품질검사, 포장, 선별 등 표준화 고도화 공정을 위한 가공검사센터를 구축하였고, 중량 표준화 등을 하는 수산물 단기 양성센터 등의 기반도 갖추고 있다. 하마선생은 활어 유통을 위한 막대한 기반을 구축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문한 활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배송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접 주문한 수산물을 이용해 요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하마선생 사례와 같이 국내 양식 활어 시장에서의 온라인 유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생산자와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 사이의 유통경로를 연결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중국 활어 유통 O2O 모델은 대기업의 막대한 기반시설이 요구되므로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활어전문유통센터 조성 시에 일부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어전문유통센터 조성 시 생산자와 유통 플랫폼 사이의 유통경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에 참여하는 어가들의 재고관리를 위한 DB화, 이력추적, 선별 및 품질관리, 중량 표준화, 안전성 검사, 임시 축양시설 등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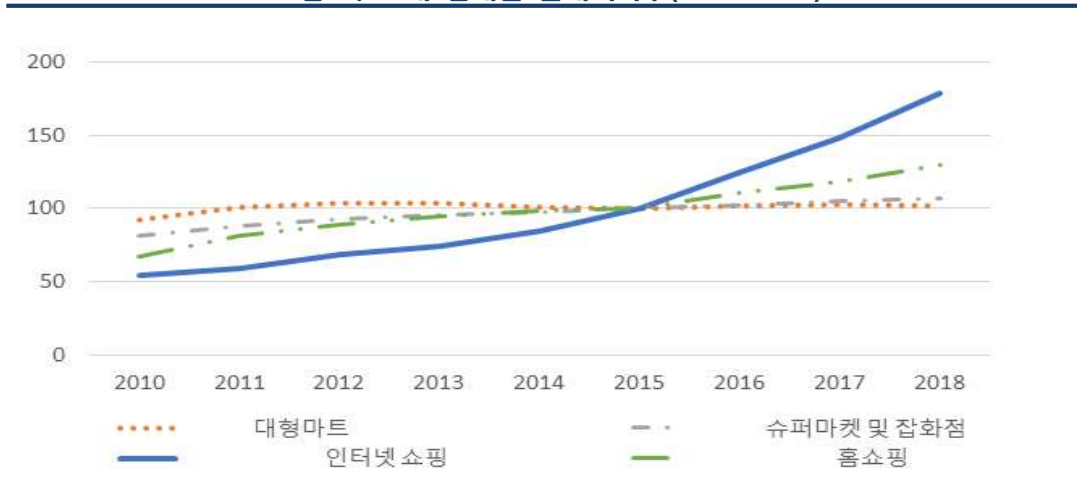
따라서 경험에 의한 유통소비 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생산지부터 거점 보관장소, 판매처, 소비자까지 최적 재고물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산 연어 등 선어에 의한 급속한 국내 활어 시장 잠식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활어에 의존한 유통구조에서 선어회 가공과 포장 판매를 통한 시장 확대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영향,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가속화 전망

■ 2015년 부터 인터넷 쇼핑이 대형마트 판매액 추월, 농축수산물 온라인 유통도 확대

-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소매 업체별 판매액은 인터넷 쇼핑이 대형마트 판매액을 넘어서면서 합리적 가격에 소비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유통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그림 1. 소매 업체별 판매액지수(2015=100)



자료 : 통계청, 소매업체별 판매액지수, 각 년도.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을 기준으로 2017년 10조 4천억 원에서 2019년 16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27% 성장 중임
- 일부 대형 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당일배송이 가능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2019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물 판매액은 3조 5,229억 원에 달함
- 최근 농축수산물 거래액 증가율은 20%대를 넘어 섰으며, 산업의 온라인 거래 증감률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1. 온라인 쇼핑물 상품군별 거래액 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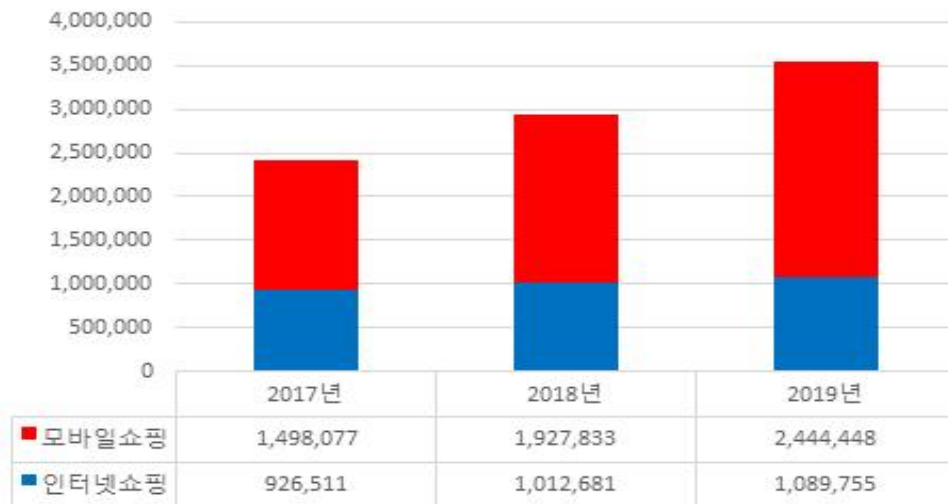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7~'19 증감률
전산업	941,858	1,137,297	1,345,830	19.5
식품산업	104,216	134,813	168,088	27.0
음·식료품	79,970	105,327	132,859	28.9
농축수산물	24,246	29,486	35,229	20.5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신선식품인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물 판매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편리성이 좋은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음

그림 2.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물 판매 매체별 거래액

(단위: 백만 원)



자료 : 통계청,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물 판매매체별 거래액, 각 년도.

■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증가, 수산물 온라인 구매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한 유통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수산물 온라인 소비도 증가하는 등 이미 온라인 쇼핑 영역은 우리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비접촉 구매 방식이 선호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구매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6년 29.1%, 2017년 30.2%, 2018년 36.8%, 2019년에는 44.6%로 매년 증가 추세임.¹⁾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수산물 구매 확대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
- 실제 코로나19 발생 직후 대형 소매점의 주간 매출액은 5%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액이 30% 증가²⁾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어 지난 2월 수산물 매출액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SSG닷컴에서 188.1% 증가하였고, 롯데닷컴에서도 생연어 매출이 2,680% 증가³⁾하는 등 온라인 매출의 급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12. P. 70. 및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자료집, 2019.12. P. 44.

2) KMI 수산업관측센터, 「코로나19 관련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2020.2.17.)

3) 뉴스1 기사(<https://www.news1.kr/articles/?3887251>, 2020.3.26)

글로벌 유통기업,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성장세 견인

■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유통기업,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 2018년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 239억 달러(한화 약 29조 1,400억)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0%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⁴⁾
- 201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선두기업을 살펴보면, 아마존(Amazon), 월마트(Walmart), 헬로프레쉬(HelloFresh), 크로거(Kroger), 아홀드델레이즈(Ahold Delhaize) 등이 있으며⁵⁾, 온라인 식료품 배달시장의 경우 이용고객 수 기준으로 월마트 그로서리(Walmart Grocery), 인스타카트(InstaCart)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⁶⁾
- 중국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 규모 역시 2012년 35.6억 위안(한화 약 6,100억)에서 2018년 2,365.8억 위안(한화 약 40조 4,900억)으로 대폭 성장함⁷⁾
- 중국의 대표적인 신선식품 유통플랫폼으로는 하마선생(盒马鲜生), 덩둥마이차이(叮咚买菜), 징둥성시엔(京东生鲜)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마선생의 경우 독자적 유통구조를 확보하여 신선 수산물 유통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그림 3. 미국 식료품, 중국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 규모



주: * 표시가 있는 연도의 값은 추정치임.

자료: Statista, U.S. consumers: Online Grocery Shopping Statistics & Facts, 2018.

iResearch, China Fresh Food E-commerce Market Study Report, 2016.

4) Statista, U.S. consumers: Online Grocery Shopping Statistics & Facts, 2018.

5) 농림축산식품부, 선진국 이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현황 및 소비트렌드, 2019.

6) Second Measure, <https://secondmeasure.com/datapoints/delivery-instacart-walmart-grocery-amazon-shipt/>, 2019.(검색일: 2020.02.24.)

7) iResearch, China Fresh Food E-commerce Market Study Report, 2016.

중국 하마선생(盒马鲜生)의 스마트 양식 수산물 유통시스템 사례

■ 품질검사, 포장, 선별, 이력추적, 활어 유통까지 표준화·고도화로 안전성과 신속성을 담보한 양식 수산물 유통시스템 확립

- 하마(盒马)는 중국 전역에 상온·저온창고 33개소, 가공센터 11개소, 수산물 단기 양성센터 4개소를 포함한 총 48개의 온도제어식 가공검사센터를 설립함⁽⁸⁾⁹⁾
 - 중국 전역에 154개의 하마선생 매장 소재, 이 중 상해(29개소), 북경(26개소), 심천(13개소), 우한(13개소), 성도(12개소), 서안(10개소)에 약 67%의 매장 분포^(20.3.4 기준)¹⁰⁾
- 하마선생에서 판매되는 양식 수산물은 중소규모 양식어가(기업)¹¹⁾, 대규모 양식기업¹²⁾, 수입¹³⁾ 등을 통해 공급되며, 온도제어식 가공검사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고품준화 공정을 거친 후 매장으로 배송됨
- 활어의 경우 매장배송 전 수산물 단기 양성센터에서 축양하는데, 그 과정에서 염도 관리¹⁴⁾, 급이 중지 등의 중량 표준화 과정, 이력추적¹⁵⁾ 태그 부착 등을 통해 상품화 공정이 진행됨¹⁶⁾
- 향후 양식어가에 전 주기적 스마트화 양식업무를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 전 과정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어당(庆渔堂)”¹⁷⁾ 사업모델을 검토 중임¹⁸⁾
 - 전 주기적 스마트화 양식 업무는 IoT를 활용하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양식어가의 수산물 재고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선별, 품질관리, 검사, 유통 및 블록체인 기반 이력추적을 포함함¹⁹⁾

8) 온도제어식 가공검사센터는 주로 상품 검사, 품질관리, 가공, 포장을 통하여 상품을 표준화하며, 상온·저온창고, 가공센터, 수산물 단기양식센터를 모두 총괄하는 명칭임. ‘수산물 단기 양성 센터’의 경우 원산지에서 공급된 수산물을 단기적으로 축양하여 상품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의미함(洪尔彬, “新零售背景下生鲜供应链分析——以盒马鲜生为例”, 漳州职业技术学院学报 第21卷 第1号, 2019. 3 P. 49)

9) 알리바바투자설명회 공식발표, https://www.sohu.com/a/342871777_99900743(검색일: 2020.02.25.)

10) 하마선생 공식홈페이지, <https://www.freshhema.com/>(검색일: 2020.03.04)

11) 중국 농업농촌부, http://www.moa.gov.cn/xw/qg/202002/t20200221_6337499.htm(검색일: 2020.02.25.)

12) 홍콩강일보, <http://sjdb.hljnews.cn/news/135454.html>(검색일: 2020.03.02.)

13) 신경제100인, <https://zhuanlan.zhihu.com/p/36405901> (검색일: 2020.03.02.)

14) 쇼핑생활포럼 什么值得买 하마선생 매장 방문 인터뷰, <https://post.smzdm.com/p/710592/> (검색일: 2020.03.02.)

15) 2019년 6월 28일 하마는 자체 수산물브랜드 “제황선(帝皇鲜)”의 바사(Basa) 및 새우류에 전면적으로 BAP 인증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수산물양식연맹(GAA)와 협약하였음 (<http://dy.163.com/v2/article/detail/EIUOAEQ205375JJZ.html>, 검색일: 2020.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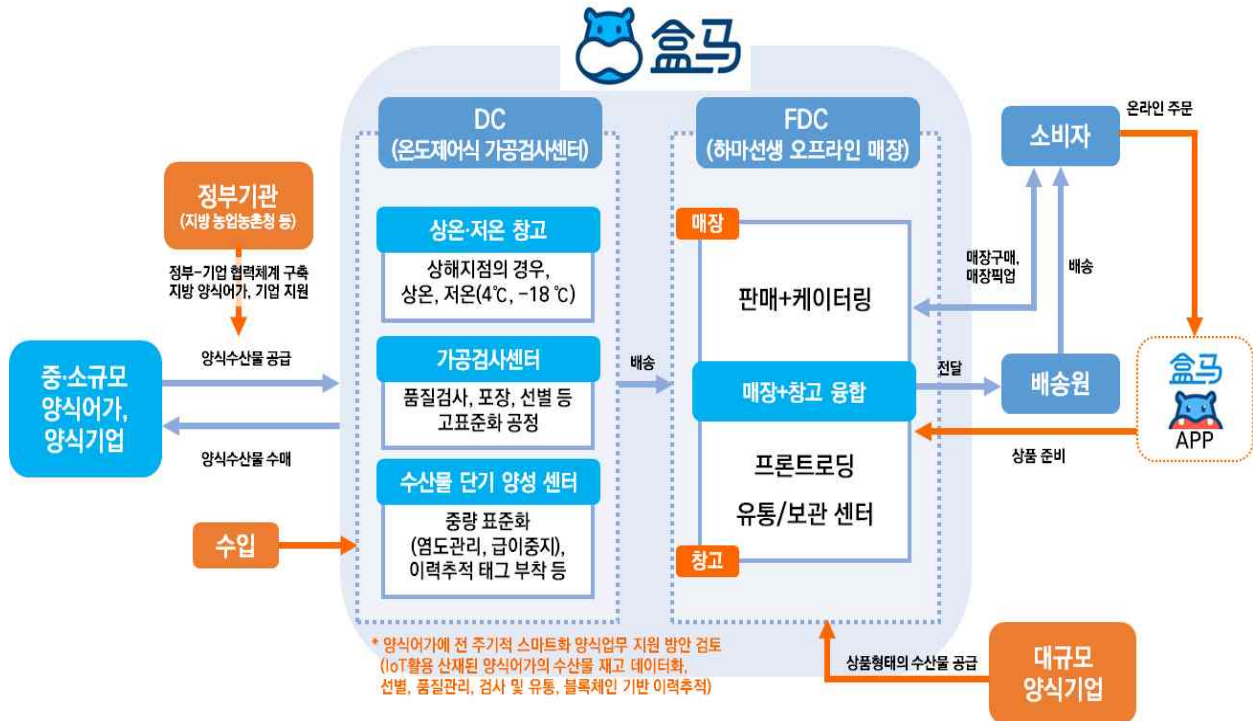
16) 심천신문, http://www.sznews.com/eating/content/2019-04/18/content_21635799.htm (검색일: 2020.02.26.)

17) 경어당(庆渔堂)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응용·운영하는 첨단기술회사로, 수산양식을 착안점으로 두고 있음(경어당 홈페이지, <http://celefish.com/>, 검색일: 2020.02.24.)

18) 2019년 11월 알리바바 임원진, 농촌사업부가 차례로 2회에 걸쳐 경어당을 방문·조사하였으며, 이후 2020년 1월 하마선생 담수어 구매팀이 경어당을 방문·조사하였음(경어당 홈페이지, <http://celefish.com/>, 검색일: 2020.02.24.~03.02.)

19) 경어당 출처 기사, http://www.shuichan.cc/news_view-395488.html(검색일: 2020.02.24.)

그림 4. 중국 하마선생(盒马鲜生)의 양식수산물 유통구조



자료 : 하마선생의 신선식품 공급사슬 관련논문(洪尔彬, “新零售背景下生鲜供应链分析——以盒马鲜生为例”, 漳州职业技术学院学报 제21권 제1호, 2019. 3 P. 49) 및 관련기사(http://www.moa.gov.cn/xw/qg/202002/t20200221_6337499.htm, <http://sjdb.hljnews.cn/news/135454.html>, <https://zhuanlan.zhihu.com/p/36405901>, <https://post.smzdm.com/p/710592/>, http://www.sznnews.com/eating/content/2019-04/18/content_21635799.htm, http://www.shuichan.cc/news_view-395488.html, <http://celfish.com/>, <http://www.haichaninfo.com/news/show-57970.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051050472467991&wfr=spider&for=pc>, <http://news.winshang.com/html/065/8069.html>, http://www.zjagri.gov.cn/art/2019/4/19/art_1589296_33437030.html)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직접 작성.

■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소규모 양식어가, 양식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 적극 지원

- 하마(盒马)는 낚은 유통부조리를 타파하고 공급상과 유통상의 지속적인 공영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며²⁰⁾, 이를 실현코자 신선 농·축수산물을 공급할 농어가 및 기업을 직접 모집함²¹⁾
- 동시에 절강성 농업농촌청과 같은 지방정부기관과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여²²⁾ 해당지역 소재의 양식어가, 기업의 양식 수산물을 수매함으로써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음²³⁾

20) 2018년 8월 상해공급상연야회 하마CEO 발표, <http://www.haichaninfo.com/news/show-57970.html>(검색일: 2020.02.25.)

21) 하마선생은 고품질의 신선 농축수산물을 공급받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 농어가와 직접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며, 약 30%의 신선식품이 전략협력기지로부터 공급됨. 기존의 불편적인 신선식품 유통경로가 '산지-도매시장-공급상/기업 구매팀'이었다면, '하마선생' 구매모델 경우 산지 농어가 또는 산지 최종소매상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기업의 구매비용 감소, 상품 질 제고를 실현하고, 산지 공급상에게는 분매(分賣)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원을 제공함 (연조도시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051050472467991&wfr=spider&for=pc>, <http://news.winshang.com/html/065/8069.html>, 검색일: 2020.03.04.)

22) 절강성 농업농촌청, http://www.zjagri.gov.cn/art/2019/4/19/art_1589296_33437030.html (검색일: 2020.02.24.)

23) 중국 농업농촌부, http://www.moa.gov.cn/xw/qg/202002/t20200221_6337499.htm (검색일: 2020.02.25.)

국내 수산물 유통,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채널 확대

■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제반 인프라 마련으로 온라인 식품시장 활성화 촉진

- 온라인 식품시장의 성장은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패턴 및 인식변화, 인프라 등 제반 여건 발달, SNS 활성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²⁴⁾
- 한편,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구매 시 온라인을 활용하는 주요 이유는 배송서비스 제공, 가격이 저렴해서, 품질이 좋아서, 소량구입 가능 등이며, 온라인 거래 시 품질과 가격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⁵⁾

■ 상품군별 세분화된 온라인 쇼핑물 등장에 소비자 식품 구매경로 다양화

- 온라인 식품 거래에서 기존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점 온라인매장을 활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온라인 식품 전문몰의 등장과 생산자단체,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공공형 온라인몰이 출현하는 등 온라인 식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음
- 「식품소비행태조사(KREI)」의 지난 3년간 온라인 식품 구매 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 종합 쇼핑몰,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을 활용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2019년도 조사 항목에는 온라인 식품 전문몰이 추가되었으며 약 12%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경로

(단위: %)

경로	온라인 쇼핑물 예시	2017	비중 2018	2019
온라인 종합 쇼핑몰	Gmarket, 롯데닷컴, 쿠팡 등	47.2	52.8	51.1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5.7	31.9	30.7
온라인 식품 전문몰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	-	-	12.1
특산물 온라인매장	지자체, 생산자단체, 우체국 등	6.6	6.2	2.9
친환경 전문점	유기농 전문점, 초록마을 등	5.4	5.6	2.8
카페, 블로그, SNS	-	4.1	2.7	0.1
기타	-	1.1	0.9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및 2019년 식품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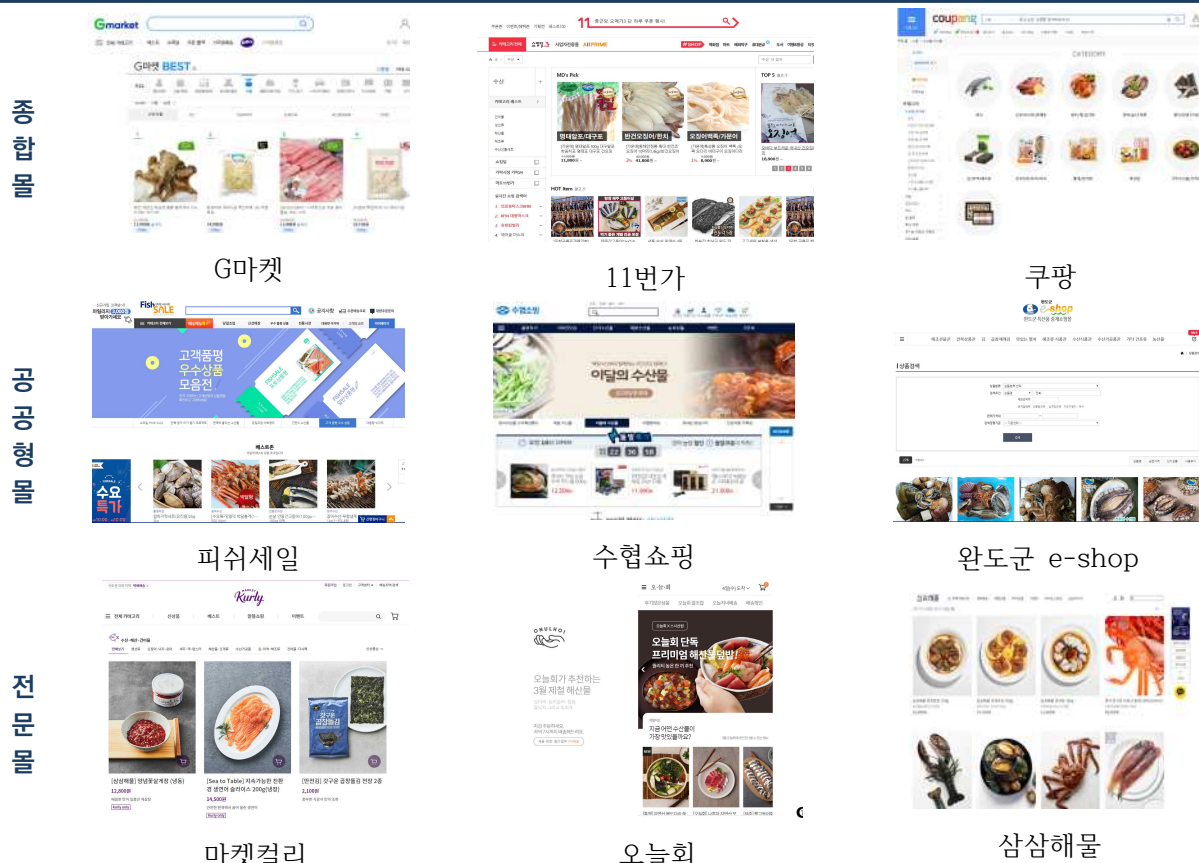
24)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인식 변화, 식료품 주 구매층인 주부층 중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디지털 소비자의 비중 확대, 물류·배송 및 결제서비스, 식품 조리 및 포장 기술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의 발달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라인 식품시장에 기여함 (차윤지, “온라인 식품시장의 기회와 도전”, 삼정 KPMG Issue Monitor, 제92호, 2018.10. P. 3.)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12. P. 76.

■ 신선식품 온라인 거래 확산에 수산물은 신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커머스 시장 진입

- 신선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수산부문에서도 원물(냉장), 냉동, 가공, 회, 조리식품 등 여러 형태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온라인 종합 쇼핑몰 외에도 식품전문몰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구축한 온라인몰이 출현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됨
- 또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외식업체 및 전문 식당가에서도 모바일 배달 플랫폼이 확산되어 배달앱을 통해 회, 매운탕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됨²⁶⁾

그림 5. 온라인 쇼핑몰별 수산부문 페이지



자료 : 각 쇼핑몰별 수산 카테고리(2020.03.04. 검색)

■ 온라인 시장 물류이동, 쇼핑몰 물류창고 통하거나 생산자가 직접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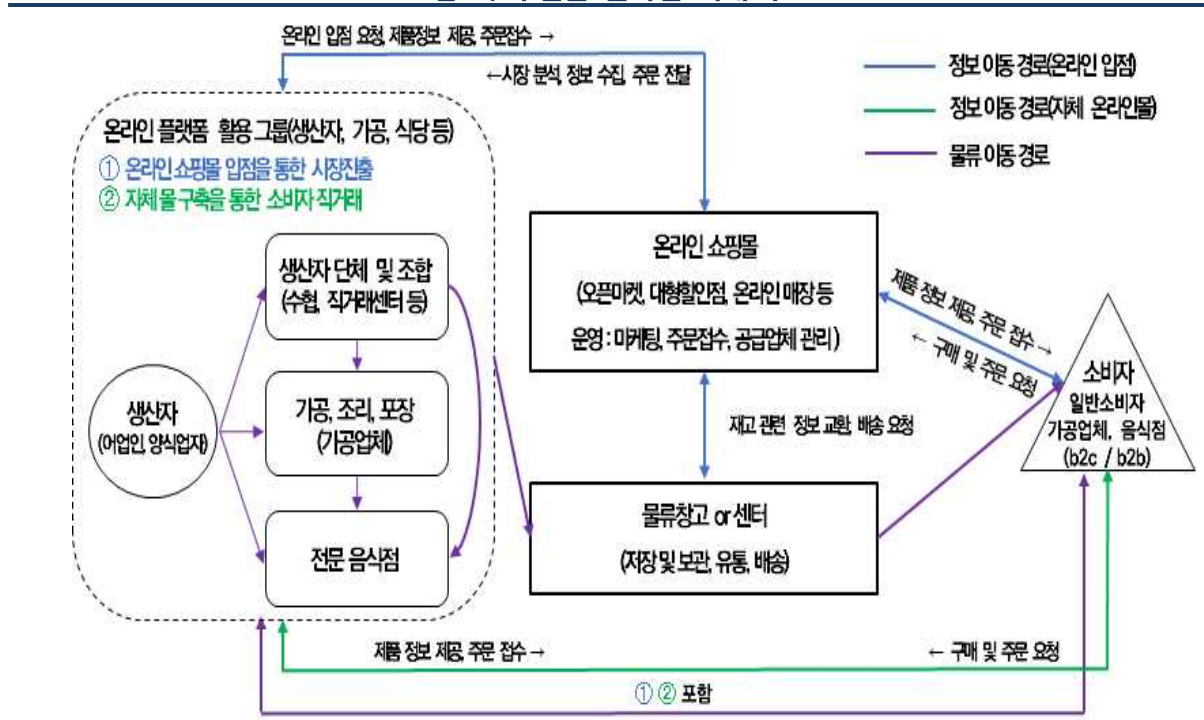
-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신선식품 물류 이동경로는 크게 i)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 ii)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로 구분됨
- 전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체가 미리 생산지에서 제품을 선별하고 물류창고에 보관·저장하

26)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은 수산물을 카테고리화 하여 식당-소비자 연결 서비스를 제공. 수산물 배달 전문 플랫폼 '회이팅'은 전날 주문받은 물량을 수산시장 새벽 경매로 수급, 회로 가공하여 당일 오후 중 수도권 내에 퀵배송하는 서비스 제공(뉴스1, "온라인 회 배달 서비스 '회이팅' 풍성한 프로모션 진행", 2019.11.26.자 <https://www.news1.kr/articles/?3777789>)

여 주문접수 시 소비지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며, 후자는 생산자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접수된 주문을 확인하여 직접 배송하는 형태와 생산자가 직접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형태 등을 포함함

- 이커머스 유통플랫폼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물류이동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유통경로를 축소시키는데 이는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요인이기도 함
- 수산물의 이커머스 시장 진입 구조의 경우 i) 온라인 쇼핑물 입점, ii) 생산자의 자체 물 구축으로 구분되며, 수산물 또한 물류의 이동체계가 생산자에서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소매단계 축소로 유통구조가 단순화 됨²⁷⁾

그림 6. 수산물 온라인 거래 구조



자료 : 저자 작성.

- 한편,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는 빠른 부패 속도, 저장 및 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저장이 용이한 냉동·가공품이며, 최근 식품 전문물, 외식업체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선회 등 식품은 배송지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함²⁸⁾
- 특히 신선회는 선도 유지 어려움으로 수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양식 어류는 대부분 활어로 유통되면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장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27) 수산물의 생산자 직거래는 도·소매 단계를 축소시켜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음(이지은 외, “온라인 시장의 수산물 유통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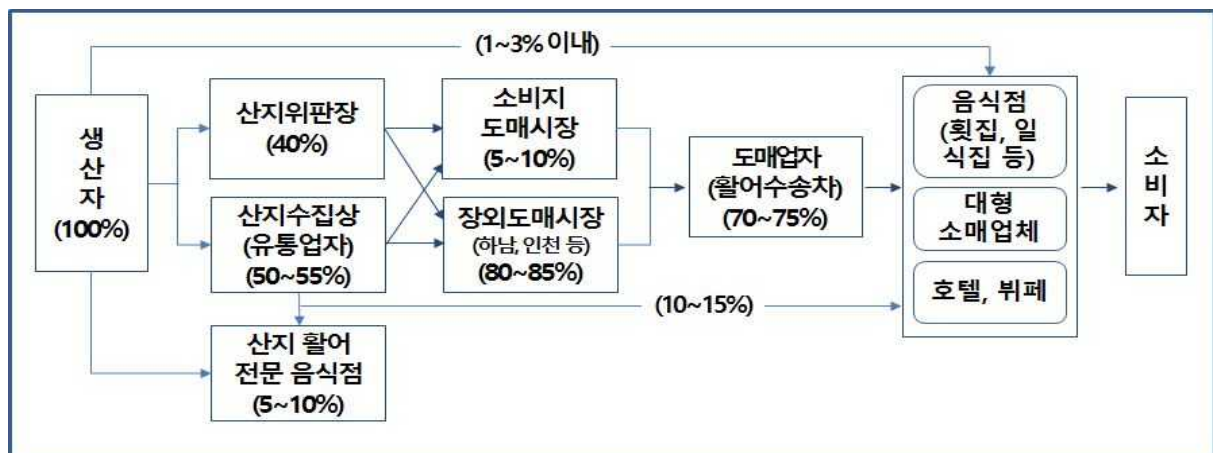
28) 오늘회, 회이팅 등 회나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 지역은 배송이 제한됨. 오늘회(<https://www.onul-hoi.com/>), 회이팅(<https://hwoieating.com/shop/>) 2020.03.04. 검색

양식 활어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입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 80% 이상 장외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양식 활어의 판매 다변화 전략 마련 필요

- 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경로와 달리 국내 양식 활어는 유통 과정에서 폐사 우려로 활어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유통되고 있음
- 국내 양식산 활어류는 활어차, 수조시설이 필요한 활어 유통의 특수성으로 하남, 인천, 대천, 부산 등 대도시 인근의 장외도매시장으로 80% 이상 유통되고 있음

그림 7. 양식 활어의 일반적 유통경로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18.

- 양식활어는 장외 도매시장으로의 유통구조 고착화로 생산자 중심의 가격교섭력이 약하고, 위생 관리의 어려움,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비동조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활어 전문유통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어전문유통센터가 수집상과 장외도매시장의 기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양식산 활어의 경우에도 하마선생(盒马鲜生)의 O2O 사업 모델 활용 필요

- 해외 사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마선생은 중소 양식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 플랫폼의 연결을 위해 온도제어식 상온저온 창고, 품질검사, 포장, 선별 등 표준화고도화 공정을 위한 가공검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중량 표준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 단기 양성센터 기반도 갖추고 있음. 여기에 양식어가 수산물 재고 데이터화, 선별, 품질관리, 검사, 유통, 블록체인 기반 이력추

적 등 전 주기적 스마트화 양식업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

- 현재 국내 양식 활어 유통의 방법으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생산자와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 사이의 유통경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고, 민간투자를 통해 하마선생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활어전문유통센터 조성 시에 일부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어전문유통센터 조성 시 생산자와 유통 플랫폼 사이의 유통경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에 참여하는 어가들의 재고관리를 위한 DB화, 이력추적, 선별 및 품질관리, 중량 표준화, 안전성 검사, 임시 축양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양식산 활어를 소비지 인근에서 일정 수준의 물량만큼 비축하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를 위한 고정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소비자 배송 시에는 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어떤 상품보다 생산물량, 재고물량, 소비물량의 정확한 예측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험에 의한 방법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생산지부터 거점 보관 장소, 판매처, 소비자까지 최적 재고물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최근 수입산 연어 등에 의한 급속한 국내 활어시장 잠식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활어에 의존한 유통구조에서 선어회 가공과 포장 판매를 통한 시장 확대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자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식품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URL: <https://www.kmi.re.kr/>